



“담배는 싫어요!” 이색 금연 캠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남이섬 방문객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및 금연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어린이 친화공원 남이섬과 함께하는 핑거밴드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담배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남이섬의 금연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하는 ‘핑거밴드 금연서약’을 비롯해, ‘담배 괴물 잡기’, ‘핑거밴드 모험’ 등 담배의 유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마련됐다. /연합뉴스

## 농식품부, 세계식량가격지수 소폭 하락

설탕·곡물값 ↑, 유제품·육류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63.5포인트로 전월의 164.9포인트보다 소폭 하락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 5월부터 하락세가 이어졌다. 설탕·곡물 가격은 상승하고 유제품·육류·유지류 가격은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설탕이 전월보다 8.7% 오른 175.4포인트를 기록했다. 설탕은 주요 생산국인 인도와 인도네시아 지역 생산

이 기후 탓에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이 올랐다.

곡물은 1.4% 상승한 166.4포인트로, 미국 옥수수 가격이 수출 수요 증가에 따라 대폭 올랐다.

유제품은 4.8% 하락한 181.8포인트로 5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으며, 뉴질랜드를 포함한 주요 수출국의 수출 물량이 증가한 것이 배경으로 풀이됐다.

육류는 2% 하락한 161.6포인트로, 소고기·돼지고기·양고기·가금육 등 전 품목 가격이 하락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 태국노동자 권익보호 상담·설계 실시

노사발전재단, 노동관계법령 등 소개

노사발전재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주한태국대사관 노무관실과 공동으로 4일 광주 평동드림센터에서 재단 취업교육을 수료하고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호남지역 거주 태국 노동자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 및 상담을 지원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용허가제도 및 체류 관련 신고절차 안내와 외국인노동자가 숙지해야 할 주요 노동관계법령 및 법률을 소개하고, 태국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이전 상담사례 공유 및 체류기간

만료 후 자발적 귀환을 위한 생애설계를 제공했다.

또한, 개별 고충상담을 통해 언어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태국노동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정식 재단 사무총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 보호, 자발적 귀환 의식 함양을 위한 순회 교육과 한국생활의 고충 해소를 위한 상담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해 외국인노동자의 성공적인 국내 체류와 귀국 후 본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

## 건설현장 600곳 겨울철 사고예방 감독

노동부, 부실현장 불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취약요인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6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산업안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시설은 물론 혹한으로 인한 건강장해(저체온증, 동상, 뇌·심혈관계 질환) 및 질식 등 겨울철 취약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중점 감독한다.

또 감독 전 사업장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해 자율개선을 이끌고, 개선이 부실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내실 있는 사업장 자체점검을 위해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취약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 등을 사전 교육하고, 자체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재해사례와 위험요인별 안전보건관리 대책 및 점검사항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누리집에 게시했다.

사업장 자체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 및 겨울철 위험현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위반 사항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거푸집동바리 설치 불량으로 콘크리트 치는 작업 중 거푸집동바리가 붕괴되는 사고(부상 6명)가 발생함에 따라 거푸집동바리 설치 상태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화재 및 붕괴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겨울철 안전보건 예방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장 자체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활동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 일자리 예산 확충·지원에 취업자 늘어나는데…

# 저임금·비정규만 늘어 ‘고용 질’ ↓

민간 대형사업장 채용 7년만에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 더 늘어 비정규직 33%… 6년만에 최대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충하며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저임금 일자리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던 민간 대형사업장도 7년 만에 처음으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더 늘리면서 민간 일자리도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고용의 양적 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장단기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부처 장관들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주재한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고용의 질 개선에도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의 어려움은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상용직 근로자가 늘어난 반면, 임시·일용직은 줄어지고 있다는 점과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에 들어온 취업자가 늘었다는 점을 고용의 질 개선의

근거로 들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9월까지 상용직 근로자는 월평균 11만5000명 늘어난 반면, 임시직은 4만4000명, 일용직은 2만6000명 감소했다.

9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는 40만 3000명 늘어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의 노력에도 고용의 질 악화를 의미하는 지표도 잇따르고 있다.

당장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모두 1년 전보다 늘어났고, 공공부문에서는 단순노무종사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한 달에 20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661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000명 늘었다. 비정규직 비중은 33.0%로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64만4000원으로 정규직 월평균 임금 300만9000원보다 약 136만5000원 적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 차이가 작년의 128만2000원 보다 벌어졌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43.6%로 작년보다 0.5%p 떨어져 3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비정규직의 증가세는 민간부문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올해 8월 기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33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000명 늘었다.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에서 한 달에 20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취업자 수는 최근 5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단순노무 종사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공공부문의 저임금 취업자 수는 38만7000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4만5000명 늘었다.

경제전문가들은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정부의 시각이 괴리된 것 같으며 기업들은 고용 비용이 증가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저임금 일자리로라도 실업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국민 눈높이와 정부의 시각 간에 괴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수산물가공식품 7종 기업에 기술이전 완료

해수부, 어육소시지·굴 통조림 등 7개 기업서 상품화 거쳐 연내 출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가공식품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국내의 소비 경향을 반영한 고부가가치 수산물가공식품 7종을 개발해 대일씨에프 등 7개 기업에 기술이전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새로운 식품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가공 중소기업과 기술력을 갖춘 대학 등 연구기관의 협업을 지원해 고부가가치 수산물가공식품 개발과 사업화를 통한 수산물가공식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상대학교 수산물가공식품 기술지원센터는 올해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통

해 국내의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산물가공 기술을 개발했다.

주요 기술로는 ▲미주, 유럽 등 먼 거리 수출을 위한 ‘어육소시지 저장성 향상 및 탄력 개선 기술’ ▲최근 해외 젊은 층에서 유행하고 있는 매운맛과 영양을 가미한 ‘매운맛 구운 굴 통조림 제조기술’ ▲비린내가 나지 않는 ‘가정간편식 품장 어볶음 기술’ 등이 있다.

기술이전을 받은 대일씨에프, (주)희창물산, (주)에바다수산 등 7개 기업은 이 기술들을 바탕으로 상품화를 거쳐 올해 안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어육소시지는 미국과 유럽 등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장기간 운송에도 특유의 탄력과 신선도를 유지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는데, 이번 기술이전으로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어김’은 지난 8월 ‘베트남 호치민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현지 바이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현재 베트남 유통업체와 수출을 준비 중이다. 이외에도 건조명란을 활용한 명란 김, 천연색소를 활용한 만든 연어 어묵, 가정간편식 피조개볶음 등이 있다.

지정훈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이제 우리 수산물가공식품은 고부가가치 상품을 중심으로 질적 성장을 해 나가야 하는 때”라며 “앞으로도 수산물가공식품산업과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연구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 주식형 펀드 ‘증시 침체기’ 부동산 펀드는 수익 ‘안정’

최근 증시 침체로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부진하지만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원 이상 펀드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지난 1일 기준 해외 부동산 펀드 32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5.01%였다. 같은 기간 국내 부동산펀드 16개의 수익률도 평균 1.89%로 집계됐다.

이 기간 국내와 해외 주식형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각각 -20.23%, -12.84%였다. 해외 부동산펀드를 상품별로 보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캐시미국부동산투자신탁 11’이 27.01%의 수익



글로벌 증시가 추축하면서 주식형펀드 수익률이 부진한 반면, 부동산펀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률로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 유형별로는 일본리츠재간접 펀드의 수익률이 7.43%로 높았다. 그러나 글로벌리츠재간접 펀드(-1.26%)와 아태리츠재간접 펀드(-3.63%)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 세계 경

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과 일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리츠재간접 펀드를 제외한 기타 해외 부동산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5.66%로 집계됐다.

/연합뉴스